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열반을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2월 21일)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수행의 師表, 대종사 품수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수행의 사표(師表)에게만 주어지는 조계종 대종사 법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12명의 대종사가 탄생했다. 조계종은 1월 8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인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스님들은 종정 진제 스님으로부터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이 법계증을 받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동국대 경주캠 신임 총장 이영경 조경학과 교수 선임

이사회서 선출… 개교 이래 첫 여성 총장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에 이영경(60 · 사진) 조경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9일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제325회 이사회를 열고, 이영경 교수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임 총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여성 교수가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영경 교수는 서울시립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미국 텍사스 에이엔엠 대학(Texas A&M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과학기술대학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영경 교수는 후보시절 제출했던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혁신과 도약의 동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우리 대학은 1978년 설립되어 지난 40년 동안 5만 여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개교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의 주요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현재 우리 대학이 당면한 현실과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영경 교수는 선출 직후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지역 강소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영경 교수는 "종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 구현 및 차별화, 강소대학으로의 체제구축, 특성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로 혁신하겠다"며 "학생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학생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사결정시스템 개혁 및 다양한 국책사업수주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경 교수의 총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돌 포교사단 '대중 속으로'

포교사단 20주년 성과와 과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인 '조계종 포교사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대중화 원년을 선포, 대중홍보와 체계 현대화에 본격 나선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최근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체계 정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2000년 3월 8일 1200명의 포교사가 조계사에서 모여 출범한 조계종 포교사단은 출범 초기 7개 지역단에 불과했지만 현재 국내외 14개 지역단에서 5000여 포교사들이 활동하는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로 성장해왔다.

새 포교사 증대 '홍보' 주력

최근 포교사단은 신규 포교사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탈종교화와 고령화의 시대 흐름 속에 한때 900여 명에 달했던 신규 포교사는 매년 감소, 2018년 428명로 바닥을 쳤다. 이런 상황에서 포교사단은 그동안 불자들 사이에서도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포교사'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신규 포교사는 460여 명으로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상황. 포교사단은 1월 말까지인 포교사 고시 응시에 대한 전국 불교대학 홍보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찰에서만 진행해 왔던 팔재계 수계법회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한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팔재계수계법회의 경우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진행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장소 대여 신청과 승인이 나는 6월 경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5000여 포교사들이 한데 모여 부처님 제자로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만큼 종단 주요 스님들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사회 저명 불자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교활동사 집대성, 위상 고취

창단 20주년인 3월 8일에는 동국대 중강당에서 20주년 기념법회와 제7회 포교사의날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포교사단의 역사와 포교사 활동상을 담은 〈포교사단 20년사〉 발간과 포교현장 다큐 제작 계획 등이 공개된다.

포교사단이 걸어온 길

1982. 3	도선사서 포교사 240명이 품수. 포교사 제도 시작
1995. 3	포교원 1회 포교사 고시 실시. 포교사 302명 배출
1999. 3	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 시작
2000. 3	김기병 초대 단장으로 조계종 포교사단 출범
2000. 5	무소유실천운동본부 설립
2003. 8	해인사서 제1차 팔재계 대법회 봉행
2006. 10	'사단법인 좋은인연' 창립
2007. 10	1기 전문포교사 44명 배출
2010. 11	1회 포교사단 신행수기공모 시행
2011. 9	〈포교사단 10년사〉 발간 및 봉정
2014. 3	'포교사의 날' 제정

포교사 응시자 반등 추세
불교대학 홍보활동 전념
서울광장 팔재계법회 추진

현대화 단복 개정 및 보급
후원체계 등 내적성장 필요
"행사보다 대중포교 주력"

방 단장은 "과거를 살피는 일에서 미래를 밝히는 일이 있기에 포교사들의 활동을 모두 집대성해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말 개정된 새로운 단복의 보급과 함께 통일된 의식집 발간 및 교육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단복은 보다 밝은 갈색으로 변경되며 포교사 마크가 자수로 새겨진다.

포교사 인식 제고 필요

20주년을 맞은 이러한 활동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그동안 각 지역단 창립과 조직 정비 등 양적 성장에 주력했다면 시대변화에 따라 이젠 포교사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내적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며 "현실상 중앙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후원체계 확립과 조직 내 소통에도 보다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학 포교사단 사무국장은 "지역단과 운영위원 토론방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증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 단장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것에 포교사단의 생명이 있기에 앞으로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 속에서 진행되는 포교에 진력하겠다.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4H'섹션으로 새로워집니다

2020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4H(Headline, Harmony, Helpful, Healing)를 의미하는 H섹션을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분야별 콘텐츠를 통해 새해 독자 여러분에게 한걸음 다가가겠습니다.

News Headline은 불교계의 한 주간 주요 소식들을 선별해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Magazine Harmony는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문화 출판 학술 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Series Helpful은 읽으면 도움이 되는 선 · 역사 · 차문화 · 교리 등 전문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Mind Healing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명저와 전문가 강의, 사유의 단상들을 담습니다.

